東亞日報

發行所 京城府太平通 (京日社內) 東亞日報社
電話本局② 一一八一番
月定價金二十五圓

社說

美蘇의 明答을 求함
—三八線撤廢要求大會를 際하야—

三八線撤廢를 要求하는 國民大會가 五日 서울運動場에서 열리엇다. 大會光景으로부터 示威行進에 이르는 全經過는 昨報한바와 갓거니와 그 五臟에서 울어나오는 沈痛한 絶叫는 鈍重한 曇天의 大氣와 어울러 悲壯하엿다. 三八撤廢問題는 原來 새삼스러운 事態가 아니나, 美蘇委員會의 再開를 압두고 이에 對한 三千萬總意를 다시금 宣揚함은 時宜를 어덧다할 것이다. 더구나 三·一運動의 直後라. 「獨立國임과 自主民임을 世界萬邦에 宣佈하고 子孫萬代에 誥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고 民族自存의 正權을 享有」케 한 그 理念과 指標를 爲하야 「獨立國自主民」의 光復運動에 絶大한 妨害가 되는 이 障壁撤廢를 부르짓게 되엇음은 民意의 自然한 動向이마. 百番도 죽코 千番 또, 죽으니, 初志를 貫徹할때까지, 그야말로 最後의 一人 最後의 一刻까지 싸워야 할것이다.

二

國土를 兩斷하고 國民을 兩斷하엿으매, 저절로 國權의 兩斷 國是의 兩斷을 招來케 함 因子를 包藏하게 되엿으니 이것을 어떠케 看過할것인가? 無時로 흘리는 三八以北의 無理한 目下의 實情等을 設或 어느 時期까지 참고 견된다 하자. 그러나, 이 言語道斷의 不法事態가 우리의 方寸과 우리의 責任이 아닌 點에서 더구나 그 根本的 非理의 究明이 없이는 一刻도 固安할수가 없다. 當初에는 單純한 軍事的 必要에 依한 暫定的 措置라 하든 것이, 그 意義와 必要가 없게되자 또 다시 政治的으로 變轉되어 今日에 이르음을 생각하면 더욱더 坐視키 어려운 不幸한 事態의 兆朕이 아니라 할수 없다.

三

朝鮮은 日本이나 滿洲等地와 함께 聯合國의 占領되어 잇음 이로써 事實이니 朝鮮의 모든 事態는 當然히 聯合國最高司令部의 方寸에 依하야 運行될것이 自明한 일이다. 事理가 이러함도 不拘하고 最高司令官인 「맥아더」將軍自身도 「不必要하게 생각한다」고 言明한 이 三八障壁이 그대로 存續되어 잇는 지 疑問中에도 疑問이다. 果然 解決할 可能이 없는가? 그러타하면 그 責任은 어디에 잇으며 그 對策은 어데서 어떠한 方式으로 나타날것인가? 아프로 開催될 美蘇共同委員會는 이 點에 對하야 우리에게 明答할 義務가 잇으며 同時에 우리는 明答을 要求할 權利가 잇다고 밋는다. 撤廢要求大會의 開催를 機會삼아 美蘇當局에 또 한번 우리의 苦衷과 主張을 披瀝하는 바이다.

複雜化하는 現下의 美英蘇關係

처칠氏對蘇强硬策表明

蘇聯勢力無制限擴大를 牽制

美英의 協力으로 世界의 最後悲劇을 防止

【華盛頓六日發 AP合同】英國前首相 「처칠」氏는 華盛頓으로부터 美大統領 「트루만」氏와 特別列車로 「훌톤」에 到着하야 「트」大統領引導로 웨스트민스타 專門學校에서 時事問題의 演說이 잇엇는데 그 演說은 目下複雜化하는 美英蘇關係에 對하야 일즉이 政界首腦로 잇든 人士로서는 第一强烈한 言辭를 使用하엿는데 그 要旨는 다음과 갓다

蘇聯은 그 勢力과 主義의 無制限擴大를 計劃하고 잇다 美英은 協力하야 世界의 悲劇을 防止치 안흐면 안될것이다 我等은 不安定한 世界列强의 均勢에 對하야 終止符를 찍지 안흐면 안된다 世界는 그러치 안흐면 野心과 冒險으로 支配될것이다 萬一 歐羅巴에 잇어서 民主主義國家의 責任을 遂行함에 잇어서 躊躇함이 잇다면 我等에게는 災難이 到來할뿐이다 平和를 維持하는 最善의 方法은 U·N·O를 支持함에 잇고 또 余는 다음과 갓흔 事項을 提議하는 바이다

一、全世界에 잇어서 美英의 海空基地를 共同使用할것、

二、美英兩國의 軍事專門家의 緊密한 提携下에 我等이 當面한 危險한 事態를 研究하고 同一한 軍隊와 武器를 使用하고 同一한 規範의 訓練을 하며 士官과 將校를 相互交換敎育할것

그리고 또 美英間에 永久的國防方針이 美國과 加奈陀에 存在한것과 갓이 英帝國全土에 미칠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하는바이며 이에 依하야 如何한 狀態가 發生될지라도 我等은 我等의 目的達成을 爲하야 協力할수 잇으며 統一할수 잇을것이다 將來에 잇어서 美英兩國은 共同市民權을 享有할 可能性을 主張하나 이것은 將來事態에 一任할것이다 目下 美英兩國에는 共產黨과 第五列이 西歐文明에 挑戰하고 잇다 【사진은 처칠氏】

極東開放策에 背馳

美, 滿洲問題로 蘇, 中兩國에 抗議通告

【華盛頓六日UP發朝鮮】美國은 蘇中兩國에 對하야 滿洲產業施設의 關鍵問題를 兩國間에서만 論議하는 것은 美國의 極東門戶開放政策과 矛盾된다고 通告하엿다 國務省은 二月九日 重慶과 모스코바 兩方에 번스國務長官名義로 覺書를 보내어 滿洲에 잇는 日本側企業은 이것을 戰利品으로 解釋하야 移轉하고 其餘의 企業은 中蘇가 共同으로 管理하자는 蘇聯의 提議를 反駁한것이다 또 國務省은 蘇聯의 戰利品要求는 一般國際法의 解釋을 無視하는 것이며 中蘇의 共同經營問題는 一九四五年여름 締結된 中蘇條約에 違反되는것이라는 中國側回答을 發表하엿다 蘇聯은 번스覺書에 對한 回答이 없다 번스覺書는 「滿洲에 잇어서 自由로운 通路가 열리지 안코 滿洲의 經濟發展에 對한 他國의 參加와 機會均等이 否認되어잇는 現狀으로는 中蘇兩國間의 協商이나 協定은 門戶開放原則에 背反되는것이며 滿洲經濟發展과 滿洲와의 貿易關係에 多大한 關心을 가지는 美國人에 對하야 明白한 差別待遇라고 할것이다」라고 論하엿다 美國覺書에 對한 中國回答에는 蘇聯이 지난正月二十二日 中國에 보낸 交涉中에서 旣往

滿洲와 東南亞細亞도

"맥아더"將軍의 權限圈內에 包含

번스長官言明

【華盛頓六日UP發朝鮮】번스國務長官은 記者團에게 三月二日이 이란으로부터 各外國軍隊가 撤退하기로 된 最後期限이라는 것은 疑問의 餘地가 없으며 美國은 蘇聯이 以上의 協定에 違反하고 잇다고 解釋한다고 言明하엿다 또 駐美이란大使는 이란政府로부터 某種의 書信을 바덧는데 이것을 來月曜日에 國務省에 傳達할것이며 포쓰담宣言에서는 日本軍은 降服後에는 本國으로 歸還시키기로 되여잇다고 氏는 말하엿다 이 聲明은 蘇聯이 日本軍隊를 시베리아로 移送한다는 風聞에 關係를 가진 것으로 解釋된다 그러나 번스長官은 어떠한 特定事實을 드러서 批評하지는 안엇다 또 맥아더大將指揮에 對한 地理的 限界에 言及하야 滿洲와 東南亞細亞도 그 國內에 包含된다고 解釋되나 이 問題는 陸軍省과도 協議決定하지 안흐면 안될것이라고 말하고 맥아더大將의 權限은 敵의 領土와 敵의 軍隊가 잇는 곳이면 그곳까지 延長되는 것이라고 言明하엿다

英蘇友好條約延長 蘇聯側에서 無回答

【倫敦六日發AP合同】英國務大臣 「훅토·로-얄·베이가」氏는 英國이 二十年間有效한 英蘇友好條約을 五十年으로 延長하자는 提議에 對하야 蘇聯은 아무런 具體的回答이 없다고 下院에서 言明하엿다 이 案은 昨年十二月에 莫斯科에서 열인 三相會議에 英外相 「베빈」氏로부터 非公式으로 提出되엇든것이다

에 日本軍에 關係를 가젓든 中國東北滿洲地方의 日本企業은 全部蘇聯軍이 戰利品으로 看做한다는 蘇聯의 聲明을 暴露하엿다

滿洲接受遲延

【重慶六日發AP合同】外交部情報司發表에 依하면 國防最高軍事委員會秘書長은 報告를 提出하엿는데 이에 依하면 中央政府가 滿洲에 잇어서의 行政機關接收는 圓滑치 못한 狀態이라 한다 卽奉天市行政權의 接收는 아직도 完了치 못하엿으며 또 長春鐵道도 아직 蘇聯軍管轄下에 잇으며 中央政府의 滿洲行政權接收委員代表는 業務를 實行치 못하고 잇는 狀態이다 또 日本投降前에는 滿洲에는 中共軍이 一名도 存在치 안엇으나 中共軍最高司令官朱德氏는 蘇聯軍에 協力하기 爲하야 中共軍의 滿洲進駐를 命令하고 이 中共軍滿洲進出이 蘇聯軍撤退遲延의 原因이요 또 蘇聯의 滿洲에 對한 要求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엿다

人類의 破壞냐 發展이냐

全世界는 危機의 岐路에

트루만大統領의 演說

【훌톤六日發合同】「트루만」大統領은 「처-칠」氏와 特別列車로 當地에 到着하야 「웨스민스타」專門學校에서 「처-칠」氏演說後에 다음과 갓은 演說을 하엿다 우리는 人類를 破壞로부터 救濟하기爲하야 國際憲章을 支持하지 안으면 안된다 現在全世界는 危機에 臨하고 잇으며 우리는 破壞냐 또는 世界歷史에 잇어서 偉大한 發展을 하느냐하는 岐路에 到達한것이다 어떠한 길을 取할것이냐 하는 것을 決定하는 것은 당신네들이요 또 그길로 指導하는 것은 나의 任務일것이고 나는 一生을 여기에 바칠것이다 (寫眞은 트르만氏)

蘇聯 "이란"에 六箇條項要求

【倫敦五日發AP合同】莫斯科에 滯在中인 「이란」首相 「아-메트·파-밤」氏는 歸途에 올낫는데 「파-밤」氏는 六個條項으로된 蘇聯要求를 携帶하엿다 한다

一、蘇聯軍의 「이란」駐屯繼續을 承認할것

二、「아제르·바이잔」自治政府를 承認할것

三、蘇聯과 同盟條約을 締結할것

四、「이란」外交는 蘇聯의 方針과 一致되여야 할것

五、아제르·바이잔自治政府軍隊編成에 對하야 蘇聯軍事顧問派遣을 承認할것

六、아제르·바이잔政府軍編成時에는 蘇聯의 立場으로 보아 重要視되는 軍事基地에 蘇軍駐屯을 承認할것

軍政廳의 特別發表

强力한 朝鮮經濟建設에 財政的援助를 考慮

情報蒐集과 實情調査次 스트롱氏來朝

朝鮮駐屯美軍司令官 하-지中將의 今日發表에 依하면 日本의 惡毒한 影響의 感染에서 버서나 獨立하고 强力한 經濟를 建設하는데 朝鮮을 援助코저 하는 問題를 美國國務省에서 愼重히 考慮中이다 財政援助問題에 對하여도 할수잇는대까지 하기로 하엿다 經濟發展政策局의 골돈·스트롱氏가 이에 關한 必要한 情報를 蒐集코저 朝鮮에 派遣되엿다 스트롱氏는 하-지中將의 經濟農業顧問 뻔스氏와 協力하야 活躍할것이다 朝鮮의 產業界와 運輸界를 再建하고 改善하는데 朝鮮이 財政的으로나 其他方面으로 必要한것을 스트롱氏는 調査할 것이다 이리하야 蒐集된 情報는 一般的으로 이 計劃을 樹立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이고 同時에 朝鮮臨時過渡政府의 要求로서 特別部門에 잇어서 援助를 줄 時에도 큰 도움이 될것이다 이 臨時(過渡)政府는 美蘇共同委員會에서 樹立하게 될것이다 美國의 方針은 朝鮮의 經濟發展에 잇어서 朝鮮을 援助함에 잇어서는 朝鮮臨時(過渡)政府와의 一定한 條件下에서 할것이다

橫說竪說

▼三八線을 치워주오! 五日 서울運動場에서 열린 國民大會의 要求는 이것이 첫재엿다▼會가 끗난뒤에 이어서 毅然한 行列이 잇엇다。貴重한 하로가 또한번 거리에서 보내젓다▼지난번 美蘇共同委員會準備會에서 手先 이問題만이라도 곳장이 낫던들 이번 擧事는 없어도 조흘일이다。▼託治問題가 없엇던들 反託示威가 없엇을것이요 託治支持分子의 反動陰謀가 없엇든들 純眞한 學生의 反託運動、反託講演이 없엇을것이요 따라서 學兵不祥事가 없엇을것이 아닌가?▼究其本하면 불응擬人氏에게서 낫거놀 病주고 藥주고 꼬집고 만저주고 거리로 나서지마라! 朝鮮의 獨立은 職場으로부터 온다 無用한 示威騷動은 惡影響을 自招한다▼晉以是也로되 배가고파서 쓰레쓰레 하는 사람에게 何不食肉米오? 하는말과 何有異哉리오!▼天下에 고기와 쌀을 두고서 請을者 어데있으며 먹을줄 몰나서 굶을者 어데있오며 먹고도 쓰레쓰레 할者 또어데있오빠?

人事往來

▲金光洙氏(株式會社鐵城文化社專務理事) ▲金基斗氏(同常務理事) ▲高義文氏(同) 新任人事次來社 ▲金英植氏(朝鮮土建日報社長) ▲廉□榮氏(同上主幹) ▲姜濟錫氏(同上業務部長) 新任人事次來社

警察歌詞懸賞募集

左와 如히 警察歌詞를 懸賞募集하오니 多數應募하심을 務望함

一、警察官의 氣魄을 高揚하고 民衆의 警察에 對한 認識을 徹底케 하는 意味를 表함을 要함

二、締切期日 一九四六年三月末日

三、原稿送付先 慶尙北道警察部警務課

賞金 一等 一千圓 二等 五百圓 三等 三百圓 各一人

一、當選發表 本紙上

一九四六年四月二十日

慶尙北道 永川警察署

女子타이피스트 採用

一、英文 若干名

實務의 經驗이 少한 者도 可

서울市本町二丁目三

朝鮮實業公社本社

英語講習生募集

募集人員 百名

受講資格 中等二學年程度

願書提出 三月九日限

男女 夜間

願書提出場所 京城驛前、天和타이피스트養成所內

受講場所 南大門通五丁目(세부란스醫專內)

漢城英語講習院

봄種子 팝니다 씨앗

서울鍾路四丁目九

동양농원

東洋農園

電話東局二三二四番

7日부터12日까지

熱帶에 砂漠에서 … 二人의 男性들이 一個에 女性을 둘너싸고 決鬪하는 鐵人들!

砂漠에 男女들

에롤·히·와쉬우넷구 演出

구루스탠·하이배루구 主演

長安劇場(舊朝日座)

劇團 靑春劇場

果然後篇이잇지展開될지?

金春光作·安鍾和演出

後篇 安重根史記

金雲善 裝置·任 彬 照明

여러분이 熱望하시든 大作

首都劇場

7日부터

女事務員募集

女商卒業程度 有經驗者 若干人을 採用함 本人自筆履歷書持參 要來談

漢城市太平通二丁目二〇七

株式會社朝鮮物產本店

藥品賣藥

製藥原料旋合各種 賣買

都賣地方注文은 …

社一手販賣元

朝鮮藥業聯盟部付係

漢城市黃金町四丁目二〇三

感氣 時效藥 富山 別府散 [illegible]

十圓 頭痛 「아스피링」 「노아구」 …

淋疾 …

根治하는 「스루파민」 …

서울 販賣店 各地 …

京城 … 總販賣所 …

左記物品大量求함

牛脂。蓖麻子油。구리세린。

아루고루。香料。와세링。마니라

紙。煙草。…

漢城市 …

大同洋行

店舖 賣渡

…

우리科學技術陣에또凱歌

輸入이杜絶된 "라듸오"眞空管

放送協會에서"再生"製造에成功

전쟁중에 일본의 과학진이동원하야 한번쓰고 버리는『라듸오』진공관을 재생하고저 머리를싸매고 연구하엿스나 성공하지못하엿섯는데 이번우리 기술자의 손으로서 이과제를 해결하고야 말엇다 이로서 진공관부족으로 『라되오』를 사용하지못하는 가정에게 한조흔선물이야날수업다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 기술부에서는 종내일본에서드려다쓰고있든『라디오』진공관(眞空管)을 우리손으로 생산하고저 준비중인데 지금곳 생산은 여러가지사정으로 불가능한 형편에잇다 그래서못쓰게되여 내여버리는 진공관을 재생리용하고저 이진공관 재생에잇서야할『까쓰』발생기를 제작하야 시험중이엿는데 이결과가 상당히 조하서 오지름 십지로 진공관제조에 착수하엿다 이재생으로 생산되는진공관 만으로도 조선안에서 필요한 수량을능히 충당할수있으므로 이야말로 가장조흔폐물 이용이아닐수업스며 폐물진공관을 재생시키는것은 세계에처음되는 일로서 조선무선공업계의 한자랑거리로 개가를올리고있다 이리하야 방금쓰고버린 진공관을 회수하야 재생에 전력을기우리고 있으므로 각가정에서 헌진공관과 라듸오를가지고 방송국으로오면 박구어끼워주기로 되엿다

革命鬪士의遺家族慰安映畵

국내·국외의 혁명투사의 유가족을 위안코저 조선영화동맹에서는 十일부터 五일간 제일극장에서 위안초대흥행을하기로 되엿다

京釜間特急列車 運輸局에서準備

일본의 침약전쟁으로 말미아마 정지되엿든 서울 부산간특급열차도 새로운희망을 가득실코 四월一일부터 또다시 달리게되엿다 운수국에서는 현재살인적인 여객수송을 완화코저·종전의『아까쓰끼』와 같이 전망차와 식당차를 연결한 호화특급 열차를 준비중이다

孤兒에金一封

金九主席이 보내는溫情

집업는천사에게보내는김구(金九)주석의온정 김구하라버지는시내남산밋향린원(香隣園)고아원에수용되어잇는 집업고부모일흔 가련한어린이에 三천원을 보내여『어서어서 커서건국에이바지하라』고 격려위로하얏다

中國在留同胞 救濟會誕生

화북(華北)재류동포구제회는 발전적해소를하고 범위를넓혀 중국재류동포구원회를 조직하기로되여 八일하오一시 시내종로 중앙(中央)례배당에서 결성대회를 개최하기로 되엿슴으로 중국으로부터 귀환한동포는 물론 동포애에불타는 일반유지의 다수참석을 요망하고있다

惡化되는平壤의空氣

어언 반년동안이나 남북으로 가로막어노코 민족을 좀먹는 三八선의 장벽을 시급히 철폐하라는 三천만가슴에 사못친절규가 五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삼팔선철폐요구국민대회(國民大會)를통하야 함차게 터저나왓든것인데 이날 서북선의 실정보고와 함께 미뭏만한 정보에 의하면 평양에서는 각전문 중등학교학생전부가 동맹휴학을 단행하야 다수한 학생이 속속검속되고있으며 또한 三월一일의 기념행사도 테러의 불상사가 발생하여 최근 평양을중심으로한 서북의 공기는 점차 험악되어가고 있는것을 전하고있다

安重根義士 遺墨을配布

의사안중근(安重根)공동상건립기성회에서는 二十六일안선생의추도회를집행하고저준비중인데 동기성회에서는동상건립의기금을모으고저 안선생의유묵(遺墨)을복사하야 일반에판매하기로되엇다

"無電機"를부뜰고 交換孃은猛練習

전파는 자유로운 창공을나르고있다

조선과국제간에 무선교환양은 체신국에서 모집중이든 바 삼십여명의 우수한연락원이 모집되여 방금 시내 원정체신학교에서 一일부터 교수가시작되엿다 레시바에 울리는『할로』에응하야『네 조선임니다』라는 응답과갈이 백옥가튼 손으로찌거가는『타이푸』외키는 영어로 떡히여가고있다 이들 중에는 독일게통·미군 군여자『뽀이·링·후이구만』이라는 十八세의소녀도 조선을위하여 공부하고잇다

R·C·A는우리"손"으로使用

시내황금정에서 미군이사용하고잇든 R·C·A·상황간 국제무선은 六일부터 조선기술진에게 맛기여 시험중이라한다【사진은무전기와싸우는교환양의연습광경】

十三專門中學男女學生들 突然히同盟休學을斷行

평양에서 三·一기념행사는 학생들에게 한하야 허락하기로되엿는데 二월二十七일 평양사범(平壤師範) 모처에회합하야 平壤師範·平壤第二中學·平壤東明中學·平壤崇仁中學·平安工業·平壤第一工業·平壤商業·平壤農業·平壤女子商業·平壤正化女校·平壤正義女校 이상 十一개 남녀중등학교 학생대표이름으로 서면을작성하야 북조선인민위원회(北朝鮮人民委員會)위원장 김일성(金日成)장군에게 요구서를제출하고 二十七일오후七시에 방송국을통하야 회답하여주기를 원하엿는데 이 요구서의내용은 대략다음갓텃다한다

◇金日成동무에게(緒頭略)

一、朝鮮完全獨立促進시키는政治要求(가)統一政府樹立要求(나)三相會議朝鮮에關한 決議絶對反對(다)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反對(라)糧食問題(마)惡用하라는三一運動記念行事不參加(바)人民에對한壓制禁止(사)論言·集合·結社·信仰·出版의自由要求

二、學生釋放(學生은即時釋放할것)

三、學生에對한壓制禁止

이상의요구서를김장군에게 제출한 학생들은 아모런회답을밧지못하엿스므로 二十八일부터는 이상의요구가관철되는날까지 동맹휴학을단행하겟다는것을성명하고 련명한十一개 남녀중등학교전학생은이날부터 학교에 등교하지안헛는데 평양의전(平壤醫專)을제외하고대동공전(大同工專)·평양사범전문(平壤師範專門)까지여기에 합류하야 三월一일만은각자학교에서 기념식을뭇잇게행하엿든것이다 그런데 이날오후五시경 기관총권총을 휴대한학생일부는 선교리(船橋里)부영주택지부근에서 보안대와 충돌이되엿는데 아직 쌍방의피해는알수업스나 이사건이잇슨후 二일현재로 각교학생약 三백명이 보안서에 검거되엿다 二일현재로 각학교는 게속하여휴교상태에들어잇고 처처에서 학생의검속은계속되고잇는상태라고한다

流血의三·一記念行事

평양에서는『三·一』기념행사로서 三월一일시민들이 시가행진을마치고 오후二시四十분경 평양역아페서 소련주둔장교와 북조선인민위원회간부 다수참렬미테 해산식을하든도중 돌연군중속으로부터『수류탄』을터저 때마침 등단하여 강연을하든 평양여성동맹 위원장 박정애(朴貞愛)(三八)씨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소련군장교두명과 인민위원회간부수명이 중경상을입은 불상스러운 사건이발생하

牧師教員들을 保安署에拘禁

평양시내보안서에서도 평양교회목사장대현(章台峴)교회목사김화식(金化湜)씨평양교회목사 박대선(朴大善)씨 박구리(博九里)교회 이피득(李彼得)씨를비롯하여 각교회목사를구금하엿다 그리고 이와동시에 기독교게통학교중 평양시 성화(聖化)고등녀학교의 교원十六명을구금하다

國語正文의講演會開催

시내화천정六번지 국어정문협회(國語正文協會)에서는 파거三十여년 국어정문에 연구를하며모든 리필수(李弼秀)씨를 특별히초빙하야 강연회와 강습회를개최하는바 강연회는三월九일 하오三시에 종로기독청년회관에서 강습회는三월十一일부터 五일간 동협회강당에서 개최한다

日本銀行券預金은今日뿐

軍政廳에서一般에注意

군정청에서는 압서 법령제五十七호로서 三八이남의 일본은행권은 三월七일까지 군정청지정금융기관에 예금하라고 발표하얏는데 六일재무국장『굴드』중좌는 三월七일이후로 일본은행권은 절대로무효로 된다고 다음과갈이연명하얏다

법령五十七호는 조선인의가진 일본은행권을 예금하는 기한인데 三월七일이후는 무효로한 것이다 그런데만일 압흐로 조선은행권과 일본은행권을 교환할기회가잇슬때에는 예금된일본은행권에 한하야서만 유효로하고 그외의일본은행권은 무효로됨으로 조선국민은 이점을 잘명심하야 三월七일까지는반드시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조흥은행, 조선상업은행, 조선신탁회사, 조선저축은행, 금융조합연합회, 또는 그지점등에 일본은행권을 예금하야 주기바란다

春川神社를圖書館으로開館

일본인이 숭앙하든 강원도 춘천신사(春川神社)를 도서관으로사용코자 준비중이엿는데 춘천소양학술연구회(昭陽學術研究會)의노력으로 다수의 서적도완비되엿음으로 뜻기픈三월一일『독립선언기념일』을복하여개관하엿다

그날그날

◇陽三月七日陰二月四日(木曜日)▲日氣豫報北西風이세게불고大體로흐리며추어는緩緩된다▲溫度最低零下零度六分(六日)

휴지통

무엇이 악마냐고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아들까지 만나지못하게하니 악마지무어야▲제서국경이냐고。 교통을 차단하고양편에서 무장으로 서로 경계하니 국경이지 무어야▲三八선은 국경보다 더심한 국경이지 반년가까히 한나라를둘노쪼개노코 교통을 차단하고 이기괴한현상이근세사(近世史)를다들추어보아도 차저볼수업는일이지▲三八선은 악마보다 더심한『악마의선』일군이 무장을 다해제한지 벌서수개월 리해하기어려운가三八의장벽▲오로지 은인자중 반년만에 국민대회를열고 三千만의총의로서 미소량당국에 호소하는것윽 조금치나 불순한태도가아니라 다못 우리의 염원을 표사하는것일뿐

學兵同盟及託學生 事件眞相(下)

綜合하야보건대 事態가자못重大하며 到底히時間的猶豫를둘수없엇슴으로 그의眞相을把握하기爲하야 一月十九日未明을期하야 同盟本部를檢索할目的으로 爲先警官五十三名을 派遣하야 該本部를包圍警戒로하기로하엿는데 警官隊가接近하자 大門前에서步哨中이든 數三人이 內部와連絡을하는故로 鍾路警察로 部署司法主任李起榮警部는 巡査趙允植當(二十四年)을식혀 우리는警察官이다 武器를버리고 손을들고나오라고 二回나大聲으로通告하엿음에도不拘하고 內部로서拳銃을發射하기始作하고 또同盟內部로서는 指揮者인듯한者의號令으로 拳銃部隊는右方으로 手榴彈部隊는左方으로 機關銃部隊는 正面으로가라는等의 戰鬪指揮가明瞭히警官隊에게들니는同時에 拳銃聲과機關銃聲의音響이 騷亂하게들임으로 警官隊는 不得已應射하기始作하엿으나 少數人員으로는 制壓하기困難함을깨닷고 緊急히應援隊를要請하자 後續하여온 百三十餘名을合하야 學兵本部周圍를包圍하고 銃聲이終熄됨을기다려서 警官隊는部內에突入하야 同所에潜居한 一黨百十九名을檢擧하는同時에 拳銃一挺、日本刀三柄、彈丸十七發、指揮刀一柄、拳銃掃除道具、其外學兵軍司令部員部署名簿等이 發見되엿고 取調한結果 一黨百十九名中에는 朝鮮學兵同盟員三十三名、國軍準備隊員六十七名、帶憑突擊隊員十名、其他九名이엿다

以上과如한情勢와經過에잇섯슴에도不拘하고 學兵同盟本部에는아무런武器도업섯스며 何等의抵抗도업섯는데 警官隊는無理하게人命을殺害식혓다云々하는世論은 眞實로遺憾이며 言語道斷으로生覺한다 더구나學兵同盟이라는看板을걸고 健全한新國家建設에이바지한다는美名下에서 國이寄附金을强要하여 私生活을經營하엿스며 昨年九月九日에는 京城鍾路警察署及管下各派出所와 丁子屋近澤印刷所朝鮮信託新井藥房三越京城交通局其他十餘箇所에警察機關과日本人財産及施設等을 不法接收하엿스며 十一月四日에는留學生同盟員十七名을反動分子라고 不法逮捕不法監禁하고 今年一月一日에는國軍準備隊員에게暴擧를當한建靑員李榮外十四名을 不法逮捕不法監禁또拳銃을强奪한後 同會員金敏洙를殺害할目的으로拳銃을發射하는等 各種의『테로』行爲를敢行하엿다(中略) 以上事實에빗추어爲先十九名背總突擊隊員十名國軍準備隊員五十六名合計八十四名中、或者는殺人未遂 爆發物과武器不法所持等의罪名으로處斷될것이다 다음에所謂反託學生十四名中九名은建造物不法侵入及破壞罪名으로亦是適當한處斷이잇슬것이다(끗)(張警察部長發表)

學兵慘事鬪爭委員會서聲明

二월二十六일부터 경기도경찰부에서 발표한 학병동맹사건(學兵同盟)에대하야 학병참사투쟁위원회(學兵慘事鬪爭委員會)에서는

一、이번 경찰부발표로보아 서대문의 반탁학생과의 충돌사건에는 학병동맹원은 참가하지안헛다

一、그러케문제가된만치 다수한무기를갓지안헛다

이외 수항목을 열거하여 四일 성명서를발표하엿다

京城師範(師範大學校豫定) 九月改 補缺生募集

一、募集人員

1、本科一年(新制高等中學二年該當) 理科八名

2、本科二年(新制高等中學三年該當) 文科若干名

3、新制師範大學學部一年에該當한學年 國文科、史學科、英文科、各若干名

4、豫科(附屬中學)一、二、(三)、四學年各若干名

二、出願期日 二月廿五日—三月十日

三、試驗期日 三月十四日—三月十六日

詳細한것은本校에來問할事

朝鮮圖書館學校學生募集

一、募集人員

(一)中等學校卒業者(官費生)十名(私費生)十名

(二)中等女學校卒業者(官費生)十名(私費生)十名

(三)專門及大學卒業者(私費生)五名

(四)委託生及聽講生 若干名

二、出願期日 三月十五日午後四時까지

三、入學試驗 筆記試驗(國語、作文、國史、英語) 口頭試問、身體檢查

四、試驗期日 三月十六、十七日兩日間(每日午前九時부터)

詳細한것은本校에來問하시요

서울市南大門通二丁目 國立圖書館內本校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 軍政廳官報(法令第一號부터加除式)發賣

申込所 서울市南大門通二丁目(朝日新聞跡) 朝鮮行政出版社 電話本局二五三二番

定期漢藥市場開設

◇每月十日·二十五日(二回) 서울市禮智町一八九、天一構內

販賣家、需用家는누구나利用하시라 品種이만코、品質이고르며、또價格이正確하게賣買되는自由市場입니다

◇每日個人間協議賣買·委託品行賣

品質改良 物々交換 買賣斡旋

株式會社 大韓藥業市場 서울市禮智町一八九番地 電話東局二二五三番

한글書道의第一人者 李珏卿女史揮毫

自習初等習字冊(朝鮮兒童文化協會版) 어린이글씨체첩 (圓四)

自習中等習字冊(乙酉文化社版) 가정글씨체첩 (圓六)

이두가지체첩은 한글글씨공부에 適當하다고 認定하여 이를推薦함 一九四六年二月廿一日 朝鮮語學會

各學校에서敎材로使用하기때문에 增刷大增刷하여도不足! 用紙關係로各學校에 優先頒配하겟사오니 各學校長名儀捺印으로 本社나本社支局普及所에申請하시압(申請金不要) 申請順대로 現品을發送하므로多少遲延되더라도諒解하시압 一般을爲하야 市內重要書店에서도發賣(地方注文에는送料一割增)

總發賣所 乙酉文化社 서울鍾路二ノ永保빌딩電光三四九二番